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야구 고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일고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 태권도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명식 목송그룹 회장, 선수단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송그룹 여자 조정선수단 창단식'이 열렸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조성… 비상하는 광주 체육”

2025 광주시체육회 결산

광주시체육회는 올 한해 '일상 속 스포츠를 기회로, 신뢰받는 체육 행정'이라는 비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올 한해다. 특히 전국체전 성적 향상, 생활체육 참여 확대, 공정한 체육 행정,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등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대회 개최와 함께 호성정을 울리며 지역을 빛내기도 했다. 한해 펼쳐진 광주체육을 돌아본다.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유치
광주가 오는 2028년 제109회 전국체전 유치를 성공했다. 지난 7월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44회 월요대화,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광주체육인의 대화'를 통해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광주체육인들과 함께 체전 유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시체육회는 광주시와 교육청, 장애인체육회로 구성된 유치신청 TF팀을 구성해 유치신청서 제출을 완료했고, 10월 대한체육회로부터 유치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2028 전국체육대회 유치 성공… 국제대회 성공개회 국비 공모사업 활발·실업팀 창단 등 체육 저변 확대

광주는 2007년 제88회 전국체전 이후 21년 만에 대회를 유치하게 됐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어울림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제106회 부산 전국체육대회 종합 11위 달성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선수단은 163개의 메달과 3만2626점을 획득해 종합 11위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18년 만에 최다 금메달을 획득했고, 5년 연속 3만1000점대 이상을 기록했다. 농구 수피아고이가 29년 만에 우승을, 불령 남자일반부 08팀이 전국의 실업팀을 몰리치고 우승을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양궁 등 국제 메가 스포츠대회 성공 개최 지원
지난 9월 광주 2025 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가 74개국 94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결승전은 민주화 성지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스포츠가 지닌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또 11월에는 2025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이 최초로 광주에서 열렸다. 시체육회는

체육시설 지원, 임직원 대회 불 조성 등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했다. 광주는 이번을 통해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양궁과 당구 대회까지 성공 개최하며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광주시민체육대회, 5개 구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등을 지원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체육 활동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시체육회는 내년도도 시민 건강증진을 우선 가치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
선수과 동호인 등 체육인들의 자기진작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총 27억6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원했다. 2025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광주시청 등 6개 단체 18개 팀에 5억4000만원을,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및 특화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3억4000만원을 받았다.

또 온가족 사계절스포츠교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에도 8억8000만원의 국비를 받아 지원해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였다.

△팀 창단 활발…연계 육성 강화
어려운 광주체육의 미래를 이어가기 위해 호남대에서 태권도 품새팀을 창단했다. 송원대에서도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지역선수 연계육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목송그룹에서는 여자조정 실업팀을 창단해 졸업한 선수들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소년체전 예선, 최초 체육회 주관 개최
그동안 교육청에서 주관해 열렸던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를 이번 제54회 소년체전부터 시체육회에서 주관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 전문기관으로서 검토 등 21개 종목의 예선대회를 차질없이 실시해 대표선수를 선발했다. 그 결과 5월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54회 소년체전에서 7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지난해 대비 경기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동맹 회장선거 마무리
시체육회 산하 총동맹체 회장선거가 지난 4월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로 새로 취임한 회장은 총 40명으로, 4년간 각 종목을 이끌며 시민과 선수를 위해 봉사한다. 시체육회는 선거 실시 4개월 전부터 총동맹체 회장선거TF팀을 구성해 각종 규정과 선거 절차 등에 대해 지원하며 선거를 원만하게 마무리해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왔다.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 활약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은 2015년부터 광주스포츠과학센터와 2020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컨디셔닝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엘리트 선수들의 기초 및 전문체력 측정, 운동처방 및 밀착지원은 물론 부상예방 훈련, 회복 훈련 등 스포츠과학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전국 (소년) 체전, 광주세계양궁대회 등 각종 대회에 전문연구원을 파견해 현장 지원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돕는 닥터 역할을 수행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로 시민 편의 도모
시체육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의 개방 확대 및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과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 체육시설 우수관리로 월드컵 경기장 그린스타디움상과 무등야구장 감사패를 수상했고, 영주승마장은 그린승마존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대강파크프랑스 확장, 무등야구장 펜스 및 그물망 추가설치 등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올 한해 광주체육이 굵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광주체육인들이 똘똘 뭉친 결과”라며 “올해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욱 빛나는 광주체육, 특히 제주 전국체전에서 10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구기종목 지역교류전…체육 인재 발굴 기여

농구·핸드볼 5000만원 국비 개최…28개팀 360명 기량 겨뤘

광주시체육회가 전문·생활체육 인재 발굴과 단체 구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류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9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동강대 체육관과 조대여고 체육관에서 농구와 핸드볼 등 2개 종목 지역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번 교류전에서는 농구 초·중학생 18개팀 220여명이, 핸드볼 10개팀 140여명이 참가해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민간클럽 소속 학생들 간 친선 경기를 펼쳤다.

지역교류전인 만큼 다른 지역 청소년들도 참여해 대회 붐을 조성했다. 농구에는 경남 거제와 충북 청주에서, 핸드볼에는 전북 익산과 정읍에서 각각 출전해 대회를 빛냈다.

이번 지역교류전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2025년 단체 구기종목 지정스포츠클럽과 함께하는 전문선수반 지역교류전' 신규사업에 시체육회

가 선정돼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개최하게 됐다.

이 대회를 통해 초·중학생들의 단체 구기종목 경기를 체험하고, 선수들과의 경기를 통해 기술 교류 및 멘토링을 할 수 있어 통합형 성장과 우수 인재 발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중심이 돼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 민간 클럽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며 “통합형 성장과 우수 인재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결과 농구 초등부에서는 우산초가, 중등부에서는 문화중이 우승을 차지했다. 핸드볼 스포츠클럽에서는 익산스포츠클럽이, 학교운동부에서는 농성초(남초)와 효동초(여초)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동강대 체육관과 조대여고 체육관에서 농구와 핸드볼 등 2개 종목 지역교류전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진성익·조송현, 배드민턴 태극마크 달았다

선발전 남자 복식 각각 A·B조 4위 흥지훈 감독 “매달 준비 온 힘” 밝혀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진성익과 조송현이 태극마크를 달고 내년 국제대회에 출전한다.

진성익-조송현 조는 최근 경북 상주 실내체육관 신관에서 열린 '2026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조 4위로 통과, 남자복식 국가대표로 최종 발탁됐다.

이번 선발전은 지난해 전국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고교·대학·실업을 합쳐 32명이 참가, 16명씩 2개 조로 나뉘어 풀리그로 치러졌다.

진성익은 A조, 조송현은 B조에 편성돼 각각 15 경기를 치렀다. 대회 결과 진성익은 승률 73.33% (11승 4패)로 4위, 조송현도 승률 60.00% (9승 6패)로 4위에 안착했다. 이로써 진성익-조송현 조는 각 조 상위 5명씩 총 10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커트라인을 통과하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진성익-조송현 조는 올해 굵직한 대회에서 성과를 올리며 주목을 받는 중이다.

지난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GOR AMONG RAGA 경기장에서 열린 '2025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챌린지' 남자복식 결승에서 개최국 인도네시아를 만나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7월에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린단컵 국제배드민턴대회'에서 단체전 3위에 올랐다.

국내 무대에서는 '전국연맹중맹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진성익(왼쪽)-조송현 조는 최근 경북 상주 실내체육관 신관에서 열린 '2026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조 4위로 통과, 남자복식 국가대표로 최종 발탁됐다.

흥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감독은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준비도 정말 많이 했다. 믿고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진성익

과 조송현이 국가대표가 됐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광주은행을 대표해 아시안게임, 세계대회 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